

서울대 (2017.5.16) 아시아연구소

# 북한 시장화 어디까지 왔나?

- 시장이 바꾸는 북한 -

김영운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 시장





특집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 없는게 없는 북한 '장마당'... 입이 딱 벌어졌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29] 라진 장마당, 그리고 외국어중학교

12.10.05 14:57 | 최종 업데이트 12.10.25 15:05 | 신은미(eunmishin) ▼

👍 511 + 크게 - 작게 👁 인세 URL줄이기 📄 스크랩

👉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 447 💬 1

저는 오래 전부터 음악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오로지 음악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쳐왔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북한에 갔습니다. 호기심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운명과 민족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생겼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지난 4월에 얼흘 동안, 그리고 5월에는 3주 동안 라진-선봉을 비롯한 북한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 기자말

첫날은 잠을 설쳤는데 어젯밤은 숙면을 취해서 그런지 아침을 맞는 기분이 아주 상쾌하다. 게다가 오늘 일정에는 '장마당' 구경이 들어가 있어 흥분된다. 평양에 있는 장마당들이 훨씬 크고 볼거리도 많지만, 평양에서는 장마당 구경이 관광객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라진-선봉에서의 장마당 구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척 기대된다.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수위 높은 이재명... "안희정, 곽학문 나와 사과하라"



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대박!



가마니가 우리 고유 물건이 아니라고?



[모이] 실날의 상징 가래떡, 판매대에 오르다



## Today's BEST

- 1 노민생세, 당신만 몰랐던 "몸생세" 해결비!
- 2 주식전문가 '324명' 급등주 패턴 파헤쳐
- 3 주식으로 번 돈만 633억 슈퍼개미 인터뷰!!
- 4 짙은방귀, "땀속피겨기" 방지했다간.. 충격!!
- 5 여의사 "기미, 주름 피부과 가지마세요!" 이유는..
- 6 짙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

김일성대 출신 주성하 기자의 북한 참망경 ④

# “북한 장마당 최고 히트상품은 오뚜기 사과식초”

[집중분석]장마당의 힘

주성하 |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zsh75@donga.com |

2009년 11월 호



댓글 쓰기



읽기 설정



인쇄

- 여학생 최고 인기직종은 장마당 상인
- '시장시스템' 활성화하는 진화기
- 국제환율 시세 정확히 반영하는 암시장 환율
- 북한 양대 동치세력은 노동당과 장마당?



북한에서 요즘 유행하는 우스갯소리. 북한의 어느 탁아소, 5세반(班)에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아이들이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새로 온 어린이 주변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전문직결혼 바로연

한 아이가 작은 입을 오물오물하며 물었다.

“너네 엄마 뭐하니?” “공업품.”

2017/02

##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 >

구독신청

Hjundai Capital | 새 about 자동차금융+개인금융

이번 달 최신 부동산정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대출하드** 화이하기

# 시장의 형성과 경제의 시장화

2017.02.05 (일) 춘천 27°C  **한국경제** 로그인 구독신청 한국어  

☰ **뉴스** 증권 부동산 오피니언 한경VIDEO 기혁이슈 HEI 스내커 뉴스레빗 🔍

 **랜드마크 프리미엄**  
최고 47% 2,000㎡까지  
오브스탈 250㎡(1단지)

 **초역세권 프리미엄**  
단지 앞 신촌역(7분)/영등포역(10분)  
시공일 더 빠르게

 **커뮤니티 프리미엄**  
시공 전후 단지 내 수영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 1566-6113

## 장마당 800곳, 5년새 2배...시골까지 퍼진 시장경제

입력 2015-11-05 07:00:00 | 수정 2015-11-05 07:00:00 | 지연정보 2015-11-05 07:11:00 **한경 스타톡** 1644-0940     

← **북한 Focus**

**뉴스**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절반은 비공식 시장  
배급체계로는 못 버텨...체제불만 해소 효과도**

 **경제변혁 이끄는 장마당 세대  
중국산 옷 입고 한국 드라마...돈벌이 관심 많고 '개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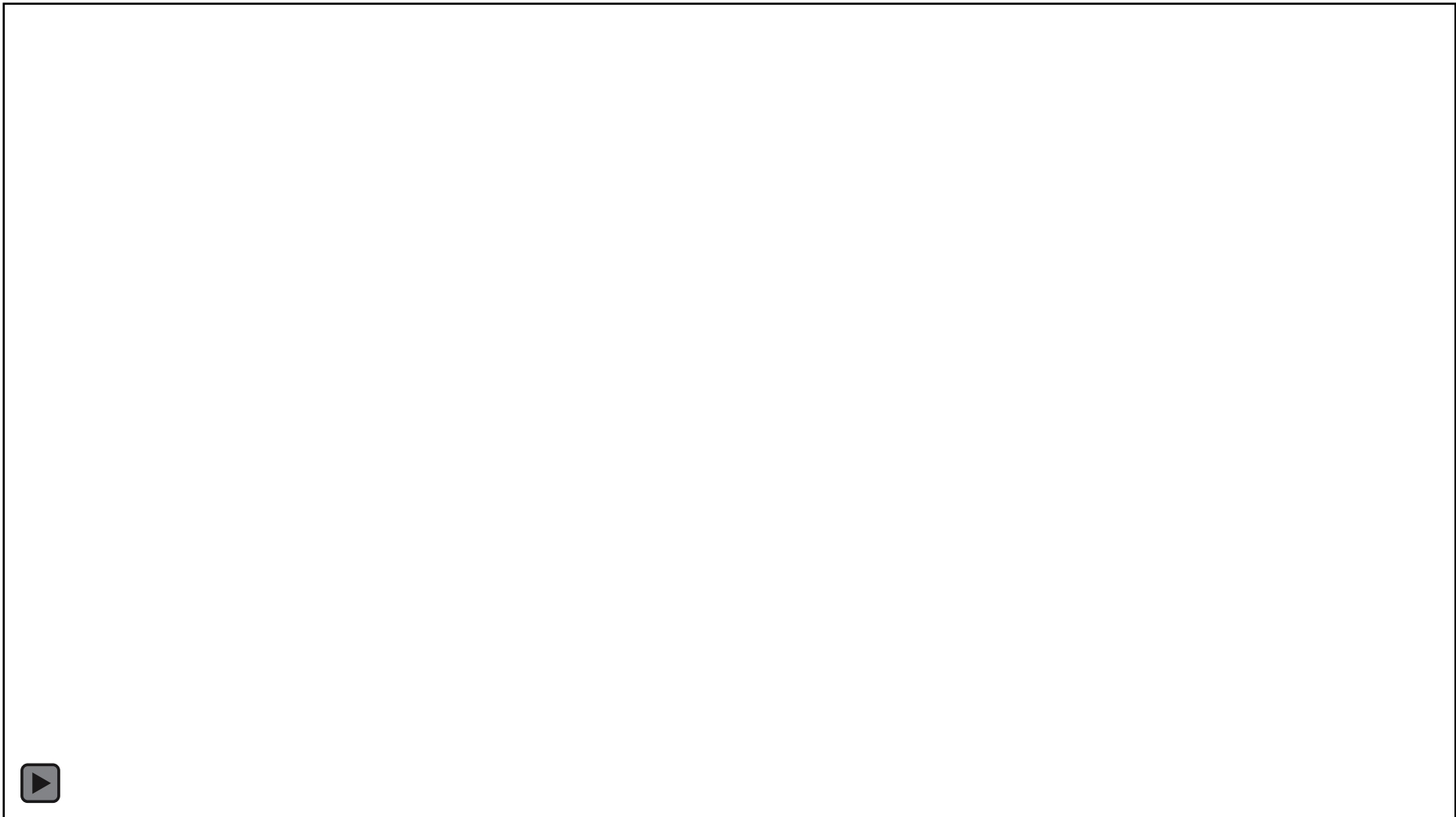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주요뉴스**

- 1월 200만원 벌면 '만화광', 200억 투자하는 '만화...'
- 북쪽 떨어지는 달러에 수출주 '경고등'...안전지대...
- 한강변 35층까지...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회파
- '행로' 대신 '니하오'...탈스펙이 바꾼 강남 아학원...
- 연대 앞 문화발전소 시대 패션거리...'신촌 스타일'...

 **인쿠폰을 드립니다!**  
11/16~2/24



## “北시장 매대 3년간 대폭 증가…청진시장 무려 1만2천개”

소식통 “北, 국가 수입 증대 위해 매대 늘려줘…혜산시장 한달 1억 수익”

김미진 기자 | 2016-03-11 11:16



북한 시장 매대(좌판)수가 지난 2012년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소식통들이 직접 시장 매대 수를 세서 확인했다. 북한 당국이 최근 3년간 시장 장세(매대 사용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장 매대를 대폭 늘려 승인해줬다고 소식통들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혜산시 시장들의 매대 수가 3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면서 “늘어난 매대수 만큼 도(道)인민위원회 상업과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개인 장사꾼들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혜산 농민시장의 경우 2012년 말 3600여 개였는데 현재는 4000여 개로 500개나 늘었다”면서 “부엌세간(집기류) 등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의 매대 구간을 줄였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품들에 대한 매대 숫자는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매대 증가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한 결과로 인해 장마당 매대 수가 증가한 것이지만 내막은 당국이 장세를 통해 국가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장사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시장 매대 수가 늘어난 것만큼 시장관리소는 장세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혜산 농민시장에서 장세로 걸어 들이는 것만 해도 1일 400만 원(북한돈) 이상 되는 데 한 달이면 1억이 넘는 돈이다’며 ‘혜산시 5개 시장을 통해 몇 억이 되는 돈이 나오는데 국가가 장마당을 허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최근 한국 상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매대를 빼앗기는 일부 장사꾼들도 있는데 이들의 매대는 다른 장사꾼들에게 팔린다”면서 “매대 크기나 종류에 따라 150만원(1m)부터 많게는 400만원(2.5m)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파는 매대의 장세는 1일 1500원정도이며, 음식 등 소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의 장세는 500원 정도다. 또 상품의 종류나 매대의 크기에 따라 장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 김정은, 중국 상인에 문 열었다...출퇴근 영업

소식통 "매일 50여명 직접 들어와 장사...김정일 방중시 합의사항"

최승민 기자 | 2012-06-20 17:32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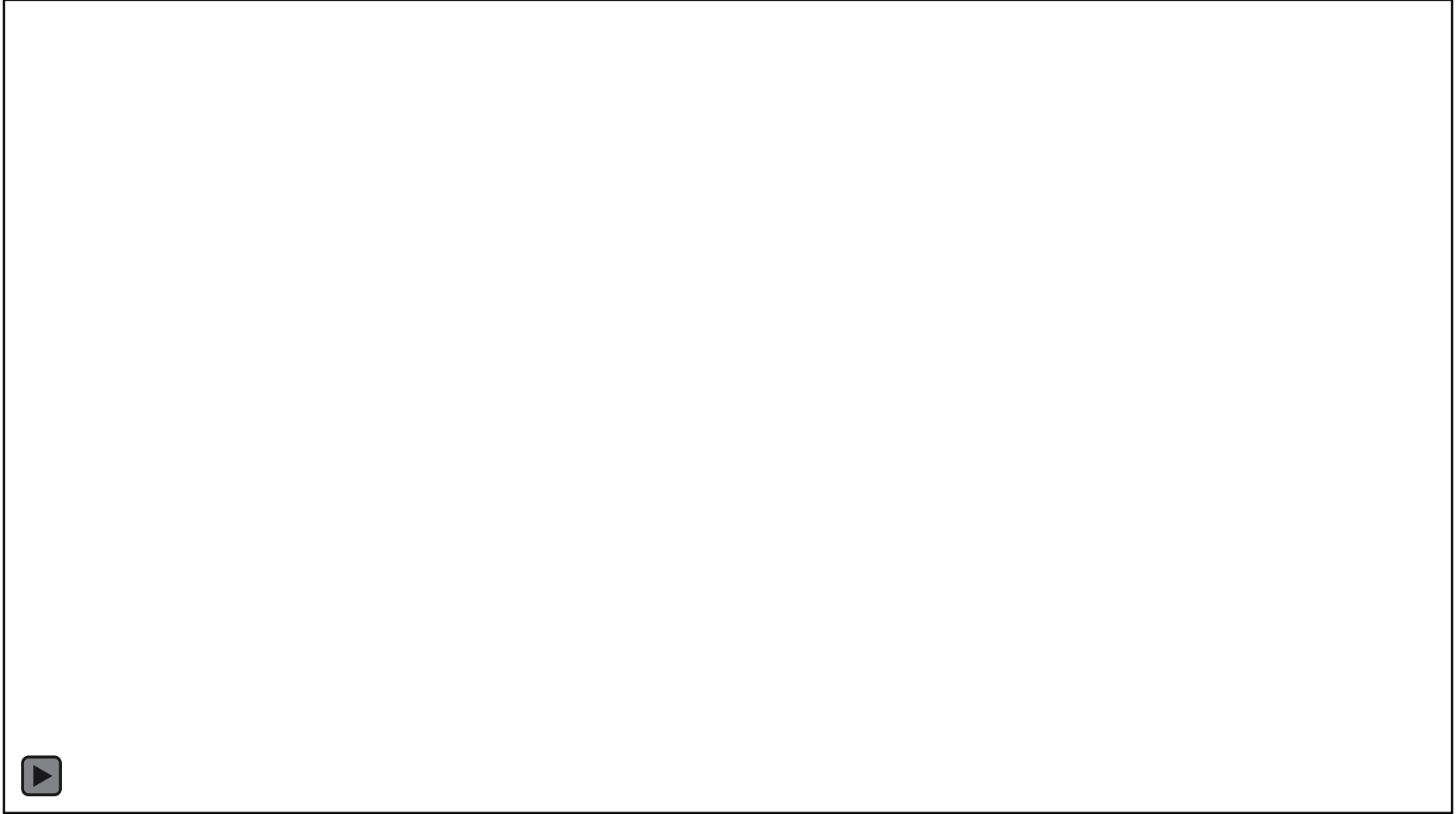


▲중국에서 바라본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데일리NK 자료 사진

중국 지린성(吉林省) 투먼(圖們)시와 두만강을 사이로 마주 보고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최근 중국 상인들이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알려왔다. 김정은식 개방 조치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달 초부터 투먼을 통해 넘어온 중국 상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남양시장에서 (판)매대를 열고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구로 개발 중인 황금평과 위화도에는 중국 투자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이 지역은 북한 내륙과 단절돼 있고, 해외 자본 투자 유치가 목적이어서 남양시장 개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이 북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 상인들이 북한 시장에 들어와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북 택시기사 인기직업 부상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6-06-13

 Tweet

 Share 0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사진은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가 운행하는 '대동강' 택시가 평양역 앞에서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택시 요금은 기본 거리인 2km당 2달러이며, 그 이상 초과되면 1km당 50센트씩 더 가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택시 운전자(운전자)들이 승객들로부터 달러나 인민페로 주로 받지만, 간혹 북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암시세 환율인 1달러당 8천 500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은 하루 규정된 사납금, 즉 일정한 액수만큼 사업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전과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다니며 '손님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택시 기사가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자, 일부 승용차 운전자들은 택시기사로 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택시 운전자들 속에는 중앙기관 운전자와 군장령 차 운전자 출신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인맥과 친척의 줄을 동원해 택시 운전자로 옮겨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중앙당이나 중앙기관에 있는 사업용 대기차가 있는데, 이들 차량은 기동시간이 적어 운전자들의 별이 시원치 않아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꾼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택시 사업소에서도 운전수를 뽑을 때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뽑고 있는데, 이때 간부 인맥과 뇌물이 오간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택시운전수를 하는데 필요한 2급 면허증을 인민보안부에 뇌물을 주고 취득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발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영터리 운전수가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에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개인택시가 없고, 전부 노동당과 내각 등 중앙기관 택시사업소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평양 5번째 택시회사 생겼다' 북한 택시업계는 레드오션?

미림승마장도 평양 택시 시장 진출

Chad O'Carroll, 2016년 11월 29일



NK뉴스가 지난 10월 입수한 사진을 보면 미림승마장(편집자 주: 평양의 실내외 유희 시설)이



## 북한 지방도시서 개인택시 영업…"하루 수입 100달러"

소식통, 평남 평성·순천 등에 최대 28대 운행…개인 투자로 영업

설승아기자 | 2014-09-11 17:36



북한 평안남도에서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과 나진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성시와 순천시에 택시가 새롭게 등장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최근 개인택시가 돈벌이 직업으로 뜨면서 돈주(錢主, 신흥 부유층)들의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과 나진에서 택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운영은 평양운수회사인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에서 관리한다. 반면 평성과 순천의 택시는 등록만 평양운수회사를 거칠 뿐 개인이 투자해 운영되고 있다.

당초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는 택시를 지방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개인 투자자들에게 택시 운영권을 준 것 같다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평남 평성과 순천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성행하면서 택시 판매, 부속품, 기사 채용 등 관련 업종도 더 붐어 활성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현재 평성시에서는 개인택시가 18대 정도 있으며, 순천시에는 8~10대 정도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작년 3월 보도한 것에 따르면 평양시에 택시 4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평양에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리와 흡사한 '콜택시' 서비스



순천시장에서 거래되는 택시는 새차일 경우 한 대당 1만 2000달러, 중고는 6000~7000달러 정도이며, 판매자가 번호판을 줄 경우 5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개인이 구매한 택시는 반드시 평양운수회사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평양운수회사에서 발급된 택시 운행증과 번호판을 받으면 '10호 초소(검문소)'도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택시 구매자는 대부분이 여성들이며, 택시 기사는 운수사업소에 의뢰하거나 인맥을 통해 채용한다. 택시 소유주가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며 보통 30~40대남성으로 경쟁률은 50:1 정도 인기가 높다.

개인택시는 '승인번호 지역'(평양, 국경지역을 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갈 수 있으며 하루 평균 수입은 기름 값을 제외하면 100달러(북한 돈 80만 원) 정도다. 개인택시 소유주는 기사에게 한 달 수입의 50%(기름 값 포함)를 주거나 월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택사업자들이 평양운수회사에 올려할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 500달러 정도를 회사 간부에게 인사치레로 주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택시 요금은 10리(4km)당 북한 돈 1만 5000원, 개인버스 요금은 10리당 북한 돈 2000원 정도다. 평성-순천 택시비는 7만 5000원으로 버스비 1만 원에 비해 매우 비싸지만,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시 이용자들이 많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

당국은 지금난으로 택시 운영이 쉽지 않고, 택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점차 다른 지방도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개인들이 능력껏 벌어들여야 하며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는 모든 장사에 이용될 것"이라며 "현재 택시는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싸지만 개인택사업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녹어져(싸져) 오토바이나 자전거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한 택시에서 요금 결제에 쓰는 카드 이름은?

다지불뉴스팀



발행 : 2013.05.12 08:03:42 | 수정 : 2013.05.12 09:05:01



북한 평양에는 택시가 실제로 늘어났고 택시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한 요금 결제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북한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이 전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명예총장은 지난 9일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북한 사정을 전했다. **다지불뉴스가 보도했다.**

박 명예총장은 "평양에는 택시 회사 5개가 있고 나라카드라는 이름이 현금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부터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해 "수학 실력이 좋고 소프트웨어에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낙후돼 있다"며 통일 전에 남북한 간 정보기술(IT)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평양과기대는 한국 동북아교육문화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설립됐으며 2010년 개교했다.

**물담하리 스포츠점**

**홈&쇼핑**

민속품 특산물 8종세트 (₩25만) (일주일만!)

**44,910원**

즉시구매


### 정치 많이 본 기사

- 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급 정무직 당직자에 여성 7명 임명
- 2 [속보]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승진 기간 제 교사 순직 인정 지사
- 3 전하 빈으니 대통령 목: 하진 진복지사
- 4 문 대통령 관저서 첫 출근 "바지 찢다"는 김정은

#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결제/포인트카드

카드 결제·물품 배송까지

북한 온라인 쇼핑몰 '옥류'



● YTN

- 생활용품부터 유명 식당 음식까지 판매
-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주문·배달 가능
- 전자카드로 결제
- 여행자 위한 숙박시설 서비스 추가 예정

YTN NEWS

북한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YTN

# 북한에도 '부동산 큰손'...재건축 투기까지

f t ↗ ★ ₩

+ -

1990년 '고난의 행군' 뒤 시장 형성  
2000년 들어 철거분양까지 많아  
기관 명의로 주택 짓고 대가 제공

평양 시내 등 입지 경쟁 치열해져  
초고층 아파트 방침에 값 2배 뛰어  
전매 차익 행기는 브로커도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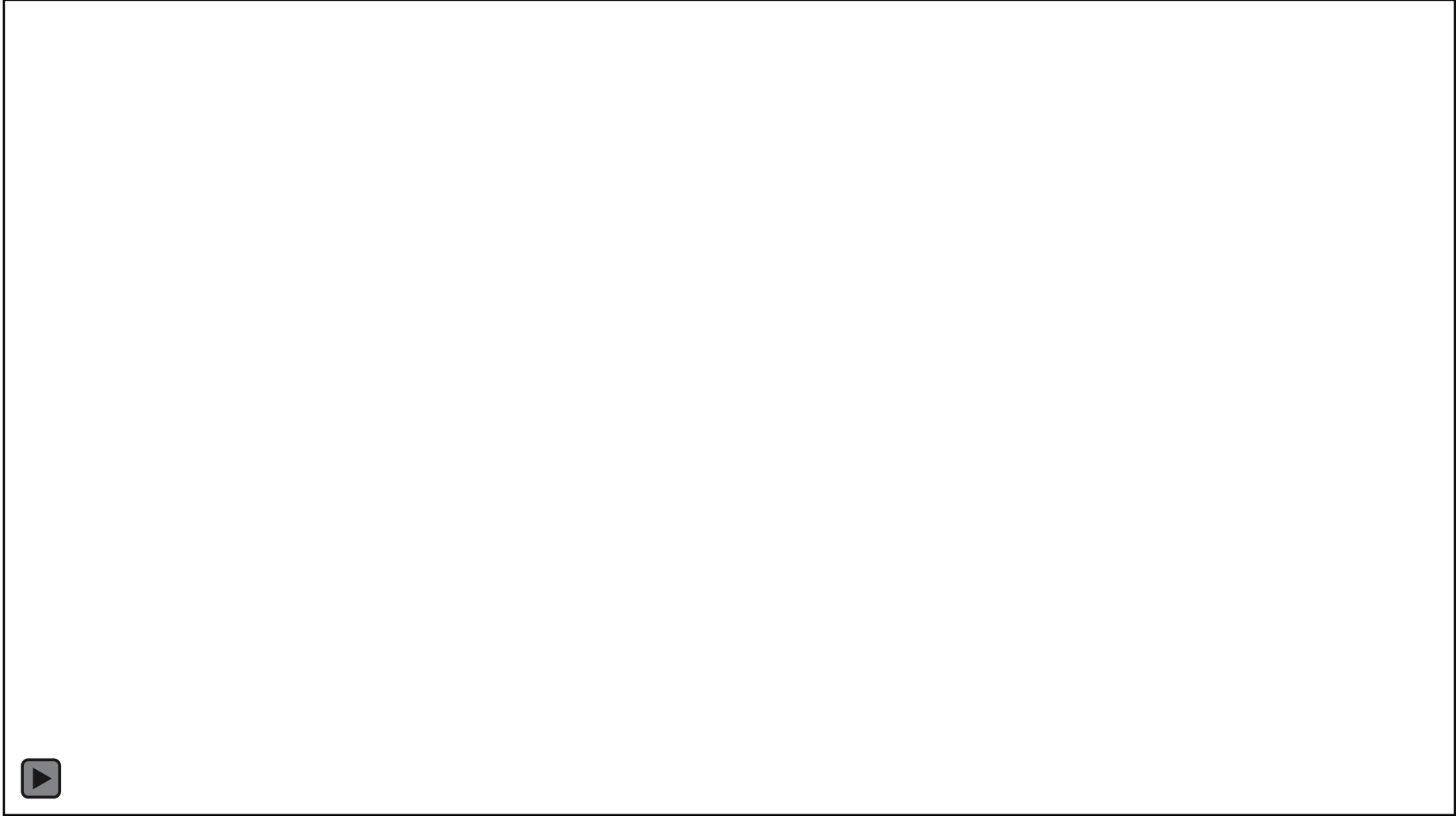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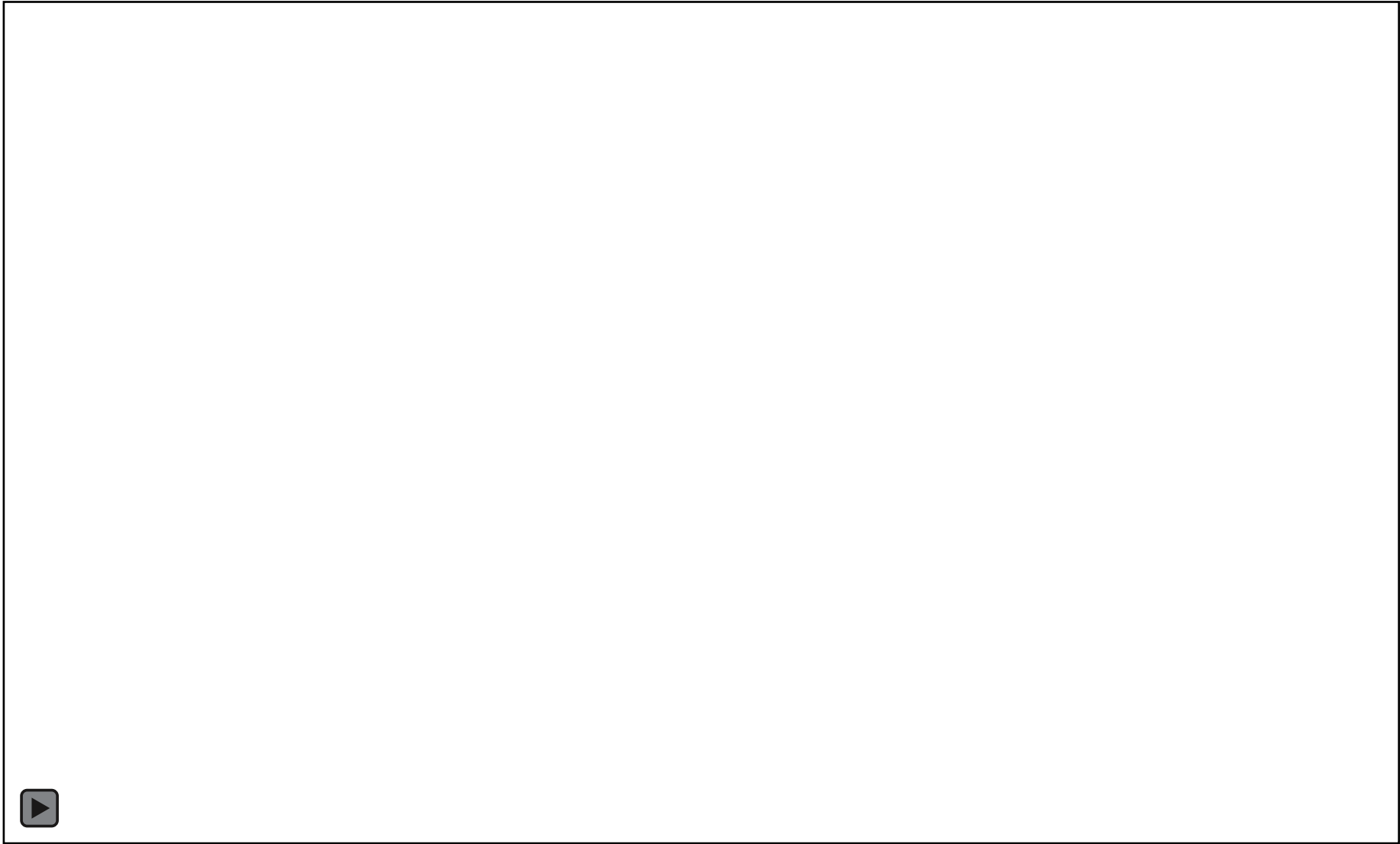
### 북한 주택개발 사업의 구조적 변동

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등

시기	사업 주도권	특징
건국 초~1970년대 중반	국가가 모든 건설자금, 자재, 설비 등 비용을 부담해 아파트 건설	주택 매매 원칙적 금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노동당 등 국가 특권기관이 아파트 건설	특권층 중심 거래 대상인 '달려 아파트' 등장
1990년대	기관의 아파트 건설에 부를 축적한 개인인 '돈주'가 자재 조달 등 참여	돈주에게 매매용 아파트 일정량 제공
2000년대 이후	돈주가 기관 명의를 빌려 아파트 건설, 철거, 재건축, 분양 등 주도	돈주들이 기관에 아파트 일정량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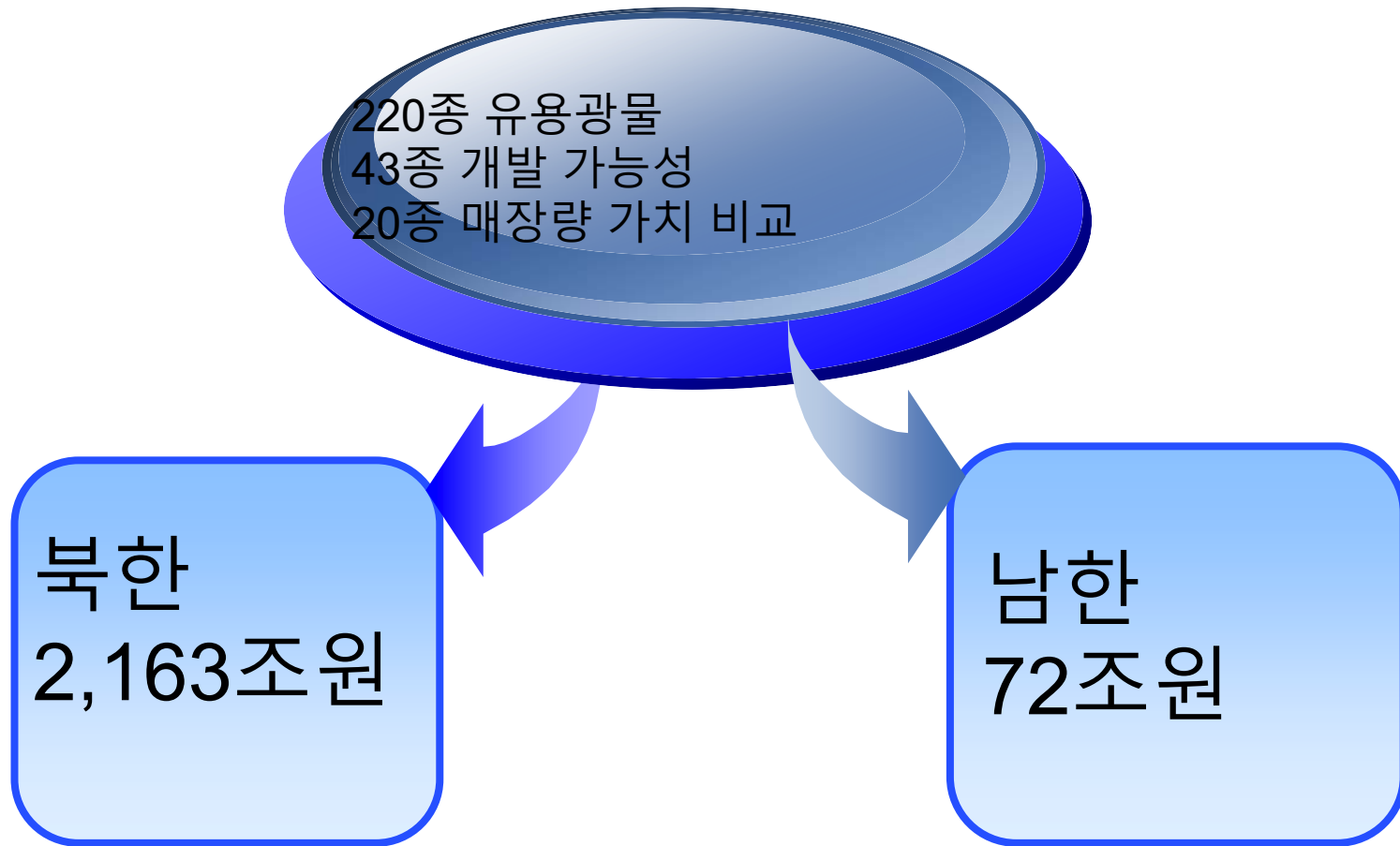
# 경제발전의 일반적 요건

- **지리적 위치**
- **자연자원**
- **자본**
- **인적자원(국민성, 기술력)**

#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의 강점

- “개발 유망자원이 풍부하다.”
- “인력이 우수하다.”

#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



## 남북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

단위: 달러



	북한	한국
금	331억3500만	20억7000만
철광석	3375억8100만	44억6500만
구리	314억1800만	3억7800만
아연	525억7400만	9억8800만
마그네사이트	1조4555억3800만	-
갈탄	3조331억3400만	-
무연탄	6889억1000만	2285억9000만



한국 2397억5700만달러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북한자원연구소

##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 가치와 남한 내수시장 및 자급도

대상광물		부존잠재가치	내수시장규모	자급도	비고
금속광물 (7종)	금	191.565억원	21.019억원	0.36%	금속제품
	은	7.446억원	963억원	5.16%	금속제품
	동	20.498억원	10.153억원	0%	전량정광수입
	연	11.783억원	1.822억원	0%	전량정광수입
	아연	67.090억원	3.748억원	0%	전량정광수입
	철	718.663억원	13.045억원	0%	전량정광수입
	중석	2.194억원	360억원	0%	금속원료
비금속광물 (3종)	마그네사이트	1.260.000억원	432억원	0%	전량수입
	석회석	9.962.306억원	9.082억원	99.81%	광산장기가행
	흑연	32.632억원	51억원	0.52%	전량수입
석탄	유연탄	1.680.000억원	27.008억원	0%	전량수입
	무연탄	7.671.288억원	4.385억원	41.54%	부분수입
석골재	석재	n.a.	9.953억원	65.20%	수입급증
	골재	n.a.	7.606억원	100%	수급파동우려

자료: 대한광물공사, 「북한의 광물자원개발 현황」

# 북한 인력과 자본문제

- “북한 노동자의 임가공 손재주는 세계 최고의 수준” (평양지역 생산 임가공 경험업자)
-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자본**
- 기술발전의 잠재력은 높으나 **자본부재**가 문제

#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나?

- 현재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 잘 살게 되었나?
- 자본형성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의 발달된 형태인 상업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후진국으로서 자본형성에 성공한 나라:  
NIC(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 자본형성과정

- 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이를 배경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 16세기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화폐가 더욱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바탕(자본주의 상업자본)이 마련되었음.

# 상품유통의 기초

- 시장
- 시장 교환 → 이익발생 → 자본형성
- 시장의 의미와 기능:
  - 교환을 통한 재화/용역의 생산,분배,소비
  - 수요와 공급의 균형
  - 경쟁: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향상

# 북한이 가난한(했던) 이유

-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 시장이 존재할 수 없었던 이유:
  - 시장의 맹목적 자연법(blind natural laws of the market)에 맡기는 것이 비인간적
  - 경쟁이 인간성을 해치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형제애를 말살
  - 경쟁은 사적 소유를 유발하고, 사적 소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인간소외와 빈부격차 등 각종 해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함.
  - 사랑·협동·공유의 사회가 되어야 함.
- **결과: 사적 자치(private autonomy: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근대 사법의 한 원리) 부재 → 저발전 경제**

# 사적 자치 부재의 결과

- 인간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의 미 발현
- 경쟁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만 제대로 발휘
- 경쟁시장의 구성 및 발전원리: 정의, 사유, 자유
- 경제의 구조적 부족과 기술개발의 침체

# 북한 경제개혁의 시작

- 2002년 “7.1조치”: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
  - 가격체제 현실화,
  - 개별 단위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공공요금 인상
  -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 지정을 통한 대외개방
  - “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
-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 중시
  -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추진

# 경제개혁의 배경과 형태

- **김정일 이후 극심한 경제난**

- 1990년대 중반 이후 실리를 내세우면서 부분적, 점진적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 **사회주의 고수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실시**

- 신사고와 실리를 강조, 새로운 분조관리제('96), 독립채산제('97), 개인 경제활동영역 확대('98), 공장. 기업소통폐합('00), 기업소간 물자 교류시장 허용('02)

# 경제활동의 자율화, 개별화, 시장화

- 생산비 개념을 고려, 현실화하는 등 국정가격체제 조정 및 화폐경제화 시도
- 정책결정의 분권화, 경제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등 계획경제의 '연성화'
  - 중앙계획지표 축소, 평균주의 타파와 경쟁체제
  -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 시장 상행위 활성화

-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체계의 하나로 인정**
  - **기업소간 물자교류:** 공장, 기업소들간 물품 거래허용,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
  - **환율의 현실화,**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경제특구 지정** 등 대외경제개방 의지 표명
-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를 모색:** 보조금 폐지, 독립채산제 운영, 감가상각금의 재투자, 이윤 중심 기업운영



# 소유범위 및 대상의 확대

- **상속법 재정**
  -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상속대상 재산**
  - 노동에 따른 분배로 갖게 된 재산,
  - 국가 또는 추가적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 개인부업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 **살림집**, 도서, 화폐, 가정용품, 문화, 생활용품, 승용차
  -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 증여 재산 및 합법 취득 재산

# 북한의 시장: 기능과 역할

- 북한 주민의 생계 수단: 정책과 상관없이 명맥을 유지
- 북한 당국도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홈페이지 | 주간 프로그램 | 북한, 이게 문제지요

# “북의 시장화는 주민에겐 생명줄”

워싱턴-변정설 pyonc@rfa.org  
2015-06-02

Tweet

Share 0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북한의 짐마당 모습.

PHOTO courtesy of Eric Lafforgue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짐마당을 통한 시장화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요즘 들어 북한에서 부쩍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 80% 정도가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남한 통일부의 추산인데요. 이 같은 시장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가장 많이 보낸 기사

- [김씨 양조의 실제] 비운의 여인 성혜림
- 김정은 마지막 만년 한인 "독친 실해 소식 충격"
- 김성남, 피살 전 북한요원과 접촉설
- 고미 요지 "김정남 피살, 충성경쟁 가능성"
- 북 김정은 '김정남 인실조' 파견하나?

## 주간프로그램



동생이 원하면 돕겠다고까지 했는데...

목요 대답

## 장마당은 평생직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마당을 떠날 수 없다. 장마당은 앞으로 취직해야 할 일터며, 장사 품목은 그들의 직종이다. 이는 남한 여학생이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 할 것이며 어떤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꿈을 가지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한에서는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면 북한에선 장마당이라는 공간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다. 남한에서 전문직 출신여성은 결혼해도 취득한 자격증이 유효하듯이 북한에서 장마당 장사 역시 결혼과 상관없이 유효한 전문직이다.

북한에서 취직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제대로 가동되는 공장 기업소를 찾아보기 어렵고, 설사 취직해도 안 하느니보다 훨씬 못하다. 쌀 1~2kg의 월급에 배급이 아예 없는 직장이 태반이다. 취직하게 되면 조직생활로 갖은 통제를 받는데다 여기저기 노력 동원을 다녀야 하며 각종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또한 엄청 많아진다. 직장 근로자는 직장 에서 받는 월급과 배급보다는 직장에 내는 것이 훨씬 많다. 직장 생활로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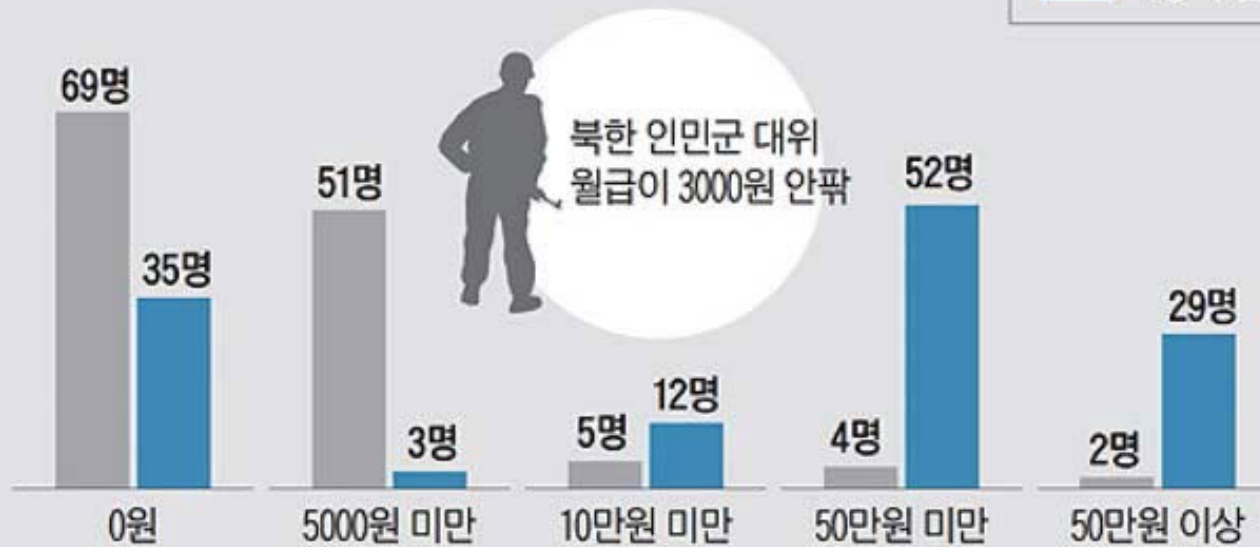
그렇지만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에 대한 통제는 매우 엄격해 만일 국가가 알선한 직장에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게 되면 행정처벌이 따른다. 심한 경우 감옥행이다. 여성도 이런 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처벌은 남성에 견주어 볼 때 매우 경미하다. 특히 결혼했을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더욱 낮아진다.

여성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남성에 비해 매우 크다보니 북한 장마당은 여성의 힘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마당에선 여성파워가 남성을 압도한다. 과거 여학생도 조국을 위해 군대에 가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다는 꿈을 꾸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군대에 가면 자기만 손해고, 좋은 외화벌이 회사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점차 깨닫고 있다.



## 북한의 공식 월급과 시장을 통한 비공식 수입

※2013년 실시한 최근 탈북자 133명 조사(2명은 무응답)



## 시장에서 장사 활동한 경험 유무 단위: %



## 북한의 시장경제화 진척도

시장활동 참여 비율	80% 후반
시장에서 번 소득의 비중	70% 이상
시장에서 지출하는 소득 비중	80~90%
시장에서 장사 활동 경험자	74.4%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 주민에게 장마당은?

- 꿈의 공간: 평생직장
- 여성 파워가 압도하는 공간
- 경쟁이 지배하는 공간
- 반체제 의식이 싹트는 공간



[실시간뉴스]

'초음공란' 조사 안받은 김영재 부인 박재운, 특검 채소안(종합)

24분 전



## 전체기사

뉴스 홈 > 전체기사

# 북한 '장마당 세대' 변화의 주체 될까

송고시간 | 2016/07/25 06:01

f t g+ (BAND) | 📷 📺 📖



사회·인권

2015.03.21 03:30

최원기

# 북한 '장마당 세대' 부상... '코리언드림' 꿈꾸기도

공유



기사 본문 인쇄



# 북한 장마당 무엇을 가져오나?

- 북한 주민의 생각과 삶의 변화
- 북한 사회 전체: 경제발전
- “잘 살수록 민주화 사회.” → 독재 탈피 (자유)
- 북한의 남한화 →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 (자유시장경제 = 남북 통합의 바탕)

HOME > 교계종합 > 사회

## 북한내 장마당 확산, 공산주의 경제 흔들다.

온누리 통일위원회, 지년달 30일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 열어

김신해 기자 | 승인 2016.12.06 | 1368호

댓글

0



트위디



페이스북



북한 내 장마당이 공산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누리 통일위원회는 지년달 30일,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마당은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고난의 행군' 대기근 이후 발생했다. 당시 기근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목숨을 잃어버렸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 형태로 장마당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물물교환의 형태였으나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장마당의 정확한

# 북한 장마당의 미래

- "아직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장마당은 언젠가 북한사회를 변혁시키는 추동세력으로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유주의를 팽배하게 하고,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의 욕구를 행동으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안찬일)

- “80년대부터 경제난에 허덕였는데, 거기에 민첩한 10대-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국가나 수령에 대한 불만**도 저희들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거주 30대 탈북자 백화성)
- “저희 세대에는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없고**, 김일성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사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박연미)
- “남한에서 들어온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KBS도 듣고, 미국의 소리 방송도 가끔 듣고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백화성)
- “요즘 **젊은 세대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언 드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남한에 가 있는 친척들이 왜 나에게 연락을 안할까, 빨리 연락을 해서 나도 남한에 가면 좋겠다는,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인** 거죠.”(이연서)

# 북한의 자본주의화

- “**시장과 교환**이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 (막스 베버)
-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위한 생산체제” (루드비히 폰 미제스)
- 창조적 파괴 (슘페터)
  - 생산성의 고도화 창출
  - 화폐와 신용

# 무엇을 할 것인가?

- 북한의 시장과 남한과의 연계: 직교역
- 기술, 자본의 이전, 협력: self reliance 지원
- 개성공단 제품의 북한 판매 및 원자재조달
  
- 북한의 경제성장 도모 → 개혁의 가속화
- 북한의 개혁 → 체제변화 → 도발의 무용화
- 체제변화(=북의 시장경제화) → 경제통합 → 통일



# 향후 과제

- 북한의 효율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진영논리 타파, 교류협력 활성화**
-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대북한 대화와 협상**
- 남북관계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방자치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감사합니다**